

이용객 급감한 광주역 활성화·챔피언스필드 운영권 협상
U대회 선수촌 사용자 소송·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

해묵은 광주 현안 출구가 안 보인다

尹 시장 “속도감 있게 추진”

민선 6기 출범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간부회의 때마다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안이 ‘상대방’이 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용객 급감으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광주역 활성화 문제, 운영권 특혜 논란을 빚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 문제, U대회 선수촌 사용자 소송,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 해법 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우선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광주역 활성화 문제는 애초 민관 TF팀 의견을 들어 광주역 주변 도시 활성화 용역을 하기로 예산까지 배정했지만, 용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에 앞서 SRT의 광주역 진입 여부 결정 등을 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의회 반재진 의원은 “SRT가 광주역 진입한다고 해도 불과 3~4편일 텐데 이마저도 광주역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며 “역사 재편 문제, 다시 말해 개발 문제로 논의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 문제로 애초 올 상반기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손익평가위원회의 회의가 일부 무산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기아차 간 수익과 지출 내역 분석 자

료와 관련, 입장 차이가 커 진행이 더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운영권 재협상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자 소송도 장기화되면서 U대회 조직위 청산 등에도 우려가 예상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감정, 금융비용 산출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며 빨라야 하반기에나 1심이 나올 전망이다. 조합 측은 아파트 임시 사용을 승인한 지난해 5월부터 입주시기인 3월까지 11개월 분에 대한 사용자, 금융비용, 이주비 등 모두 467억5000만원(부가세 포함)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대회 기간과 원상복구 등 126일간 사용료로 34억원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소송이 모두 마무리돼야 조직위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애초 조직위는 오는 7월께 해산될 예정이었다. 현재 파견 공무원 3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위 청산 절차 등이 늦어져 행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이밖에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에 따른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시는 롯데마트 측과 불법 전대에 따른 비용 환수 등을 협상중이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일부 현안들이 민선 5기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민선 6기 출범이후 2년 동안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성 등 미세먼지 측정소 없다 ▶6편

시간속을 걷다-신광철교소 ▶18편

KIA ‘볼펜의 소금’ 박준표 ▶20편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제조업 고용↑...전남, 청년이 돌아온다

전남도, 고용 2만4000명 증가 ‘지자체 일자리 대상’ 전국 1위
광주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상...광산구·광양시 최우수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남도는 제조업 고용 인원이 크게 늘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2편〉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전남도가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4억원을 받게 됐다. 농어업 중심인 산업구조인 전남도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

출을 통한 종합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더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광역시·도 부문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해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기초단체 부문에서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순천시와 담양·완도군은 우수상을, 광주 북구는 특별상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전남도가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4억원을 받게 됐다. 농어업 중심인 산업구조인 전남도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

출을 통한 종합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더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 고용인원을 10만명 선으로 회복시켰다. 지난 1998년 3월 제조업 종사자 수가 10만 2000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제조업 고용인원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만8000명이 늘어난 가운데 전남은 2만4000명이 증가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남이 이처럼 제조업 부문에서 초강세를 보인 이유는 국비·도비 지원 등 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을 대거 유치한 데 이어 이들 중소기업들이 고용인원을 대거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남지역 인구 수도 3216명 늘었다.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갖고 도정을 운영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낙연 지사 취임 첫 해인 2014년 고용·투자유치 예산으로 188억원을 편성한 뒤 지난해의 올해 240억원·302억원을 편성하는 등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4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처우개선 노력과 생활임금제 시행, 알바지킴이·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폭포가 그리운 계절 순천 30.6도, 광양 30.5도 등 광주·전남 곳곳에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 31일 광주시 동구 학동 인근의 광주천에서 산책을 하던 한 가족이 시원스럽게 물을 내뿜고 있는 인공폭포 앞을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덥고 긴~ 여름

광주·전남 불볕더위 기승
55개 해수욕장 개장 준비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5월 중순부터 섭씨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선을 보이는데, 이달부터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6월 평균기온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21.3도)과 비슷하게

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첫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평년(20.6도)보다 높고, 둘째 주에도 평년(21.4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주도 평년(22.8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특히 1일 광주·나주·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초순에는 30

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장마가 끝난 8월에도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은 7~10개가 발생, 이 가운데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전남지역 55개 해수욕장을 7월 1일~8

월 31일까지 62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날 밝혔다.

전남에선 신지명사십리와 고흥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는다. 이들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 8월 21일과 31일까지 운영한다. 무안 홀통·돛머리, 목포 외달도, 여수 만성리·웅천·모사금·장등·방죽포·무슬목·거문도·안도 해수욕장 등 11개 해수욕장은 같은 달 9일 개장, 8월 16일과 21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